

# 과학적 세계관과 전통적 세계관

글 | 박이문 \_ 연세대학교 철학과 특별초빙교수 ynhui@hanafos.com

지식은 직관에 의존하는 어떤 특정한 대상의 단순한 지각적 지식이 아니라 그것의 작동원리를 어떤 가설에 의해서 설명하는 이론적 지식이다. 세계관은 우주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의 원리를 개별적인 동시에 총괄적으로 인식하고 설명하는 양식이며, 학제적으로는 종교적, 철학적, 과학적 등으로, 시대적으로는 원시적, 전통적, 근대적 등으로, 지역적으로는 동양적, 서양적, 아프리카적 등으로, 문화적으로는 동북아시아적, 기독교적, 이슬람적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문제는 제각기 자신만의 '진리성'을 전제하는 세계관이 서로 복잡하게 상충한다는 데 있다. 여기서 우리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모든 세계관을 과학적 및 비과학적 세계관으로 단순하게 양분한다고 하더라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과학적 세계관과 비과학적 세계관은 그 내용, 그 논리적 근거, 그리고 그것에 함축된 결과에 있어서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두 가지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고 할 때 한쪽이 진리로서 수용된다면 다른 쪽은 허위로서 폐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과학기술문명이 긍정적이라면 과학적세계관도 긍정적

과학적 세계관, 즉 세계를 인식하는 양식은 그 밖의 세계관과 어떻게 구별되는가? 그것은 (a)인식대상의 설정, (b)인식대상의 서술 양식, (c)인식적 신념의 근거, (d)그 신념에 대한 태도 등의 차원에서 가능하다. (a)의 경우 그것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물리적 존재이며, (b)의 경우 그것은 기계적으로만 설명할 수 있는 인과적 구조이며, (c)의 경우 그것은 입증, 더 정확히 말해서 반증가능성에 있으며, (d)의 경우 그것은 언제나 변경가능성을 열어 놓은 개방적 태도이다. 과학적 지식, 세계관, 지적 신념에 관한 위와 같은 사실들은 전통적, 가령 종교적 및 철학적 세계관의 대상이 지각의 차원을 넘어선 '초월적, 의인적, 영적' 혹은 '관념적 실체'를 포함하고, 종교적 및 철학적 세계관의 근거가 반증이 불가능한 '계시'나

지각과는 독립된 순수한 논리적 사유에 근거하고, 폐쇄적이거나 독단 혹은 독선적이거나 하다는 사실로서 분명히 드러난다.

인류로 하여금 경이로운 물질적 부, 기술적 힘, 그리고 지적 빛을 누리게 한 오늘날의 첨단 과학기술문명은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 문명의 바탕에 과학적 세계관이 깔려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면, 과학적 세계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피할 수 없다. 그것은 과학적 방법으로 유도된 세계에 관한 인식이 그렇지 않은 방법에 의해서 얻어진 세계에 관한 인식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 것으로 인정되고, 따라서 과학적 세계관, 즉 과학적 진리도 과학기술과 못지않게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적 세계관, 인식, 진리가 전통적, 즉 비과학적 세계관, 인식, 진리와 상충할 때, 우리는 전자를 택하고 후자를 폐기해야 함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을 인정하고 그 열매를 향유하고 더 많은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면서 과학적 세계관, 인식, 진리를 거부하고 그것과 양립할 수 없는 비과학적, 즉 전통적 세계관, 인식, 진리를 주장한다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명백한 모순이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과학기술문명에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끼면서 가능하면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지적으로 과학적 세계관에 거부감을 느낀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서적 차원을 넘어 순수한 지적 차원에서 적지 않은 종교인이나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 자신들이 과학적 세계관, 인식, 진리의 한계 아니면 오류를 지적하고, 그것을 비판, 규탄하며, 과학적 세계관과 양립할 수 없는 철학적 및 종교적 세계관, 인식론, 신념들의 옳음과 전통적 세계관으로의 복귀를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그것으로의 회기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이런 주장의 근거로 과학적 세계관의 정서적 삭막함, 이론적 지적 한계성, 그 내용의 극심한 추상성이라는 세 가지 사실이 제시된다. 이와 같은 주장들에 정말 근거가 있는가?

## 과학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세 가지 근거들

첫째 사실은 과학적 세계관에 필연적일 수밖에 없는 세계의 내재적 의미-가치의 부재에 있다. 과학적 세계관이 보여주는 세계는 차디차고, 삭막하고, 황당하다. 과학적 관점에서 볼 때 식물, 동물,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감정을 포함해서 모든 현상은 궁극적으로 미립자로 분석하여 물질로 환원되고, 모든 현상은 양적 차원에서 수학적으로 계산되고 예측할 수 있는 기계적 인과법칙에 의해서 설명된다. 거기에는 감정도, 생명도, 인간도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아무 '의미'도 없는 가치중립적 사실만이 존재한다. 과학적 세계관에서 생명, 인간성은 증발되고, 과학기술문명의 철저한 비판자인 실존주의 철학자 바렛트의 한 저서의 제목대로, '영혼의 죽음'만이 남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예수는 이미 아득한 옛날 "만약 인간이 자신의 영혼을 잃는다면, 그가 세계 전체를 얻는다 해도 그것이 인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경고했다. 바로 같은 이유에서 종교학자 스미스는 과학적 세계관을 버리고 '사람들이 제집처럼 느낄 수 있는 전통적 세계관'에 돌아갈 것을 주장한다. 전통적 세계관에서는 인간과 그들의 세계는 다 똑같이 영적 감각을 소재로 만들어져 있으므로 인간은 바로 자신의 세계에 속해 있다는 것이다.

둘째의 과학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근거로 과학이 인간의 근본적인 물음에 대답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지적된다. 스미스의 주장을 예로 들자면, 과학이 모든 물리적 현상을 완전히 만족스럽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적, 영적 사항에 관한 더 근본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째서 여기에 존재하게 되었으며, 여기서 존재하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 것이며, 죽은 후에는 무슨 일이 생기는가?"라는 물음에 대해서 과학은 원천적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과학적 세계관과는 달리 종교적, 즉 전통적 세계관은 나름대로의 대답을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과학적 세계관에 비해서 전통적 세계관이 상대적으로 더 포괄적이고 더 진리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한다고 한다. 과학적, 그리고 전통적 세계관 둘 가운데서 하나만을 따라야 한다면, 전통적, 즉 종교적 세계관을 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학적 세계관, 더 일반적으로 말해서 과학적 진리를 거부하는 셋째 근거로 어떤 인식대상에 대한 과학적 서술의 지나친 추상성, 즉 비구체성, 극도의 환원적 성격, 즉 우리가 감각적으로 관찰하는 것과 전혀 다른 수학적 도식적 성격이 자주 지적된다. 우주의 물리적 현상을 서술하는  $E=Mc^2$ 이라는 놀랍게도 단순한 언어가 구체적인 물리적 형상의 있는 그대로의 그림-서술-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구체적인 실체를 왜곡함으로써 가능한 진리, 즉 진리 아닌 진리라는 것이다.

## 유물론, 인식, 진리 등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서 유래

그러나 이윽게도, 아니 다행히도 과학적 세계관을 부정하는 근거로 제시한 주장들은 설득력이 없다. 첫째 과학적 세계관이 유물론적 형이상학과 기계적 인과법칙을 전제하는 인식론을 깔고 있고, 그 결과로 과학이 보여주는 세계는 '영혼'이 죽고, 삭막하며, 따라서 무의미하며, 바로 그런 점에서 잘못된, 참이 아니더라는 주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은 유물론, 인식, 이론 및 진리 등의 개념들에 관한 잘못된 인식에서 유래한다.

진리는 인식대상으로서의 세계의 일부 혹은 전체로서 발견의 대상이 아니라 세계의 일부 혹은 전체에 대한 사실적 서술이다. 어떤 대상에 대한 명제가 참, 즉 진리이면 그 진리는 그 대상의 가치평가와는 전혀 논리적 관계가 없다. 나의 건강상태에 대한 '암'이라는 진단이 사실, 즉 진리라면, 그 진단은 그것에 대한 나의 주관적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역시 '진리' 즉 '참'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 진리는 언제고 달콤하거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때로는 쓰고 차다. 그러므로 진리, 즉 참된 앎은 귀하다. 진단을 통해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객관적 사실, 즉 진리를 수용할 때만 비로소 나는 '암'을 치료하고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과학적 세계관이 인간에게서 피할 수 없는 초월적, 즉 종교적 물음에 원천적으로 대답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폐기되어야 하고, 그러한 물음에 대답을 제공한다고 자처하는 전통적으로 존재해 온 종교적 세계관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다. 나는 과학적 지식이 우리가 의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믿지만, 설사 과학적 세계관이 참이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종교적 세계관이 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종교적 주장이 독단적이고 폐쇄적인데 반해서 과학적 세계관은 실증적이고 개방적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은 예수가 한 말이다.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객관적 사실, 즉 진리를 전제한다는 말이다. 오늘날의 진리는 예수의 선언이 아니라 과학이 사유에 있다. ⑤



글쓴이는 서울대학교 불문과 졸업 후 프랑스 소르본대에서 불문학 박사학위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보스턴, 시몬스 대학 및 포항공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특별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